

嬰兒의 離乳實態

—大田地域—

忠南大學校 理科學部 家政教育科

丁 英 鎮

= Abstract =

Weaning Practice for Infants in Daejeon City

Young Jin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Science, Chung Nam National University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the weaning practice for infants, this study of 251 infants aged from 3 months to 2 years old was conducted in Daejeon City during the the period of August 9 through 23, 1978.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About 60% of the infants were breast-fed, 27.6%, mixed-fed, and 12.0%, bottled-fed. The reason for bottle-feeding was either the lack of breast-milk secretion or ill-health of mothe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eding methods according to a level of mother's education.

Sixty percent of the infants began to be weaned 6. months. The most of the infants were completely weaned within 18 months.

The knowledge on weaning was mainly obtained from the publications, such as newspapers, journals for women, child care booklets, etc.

The difficulties in the weaning practice were the shortage of knowledge on weaning and the unacceptability by the infants.

Liquid or semi-liquid foods were firstly given to the more than 60% of the infants as introducing weaning foods, while 23.3% of the babies were given solid foods. Interestingly, the earlier the birth order was, the more babies were given liquid or semi-liquid foods,

The motives for weaning was either the baby's demand for other foods than milk(41.3%) or the lack of breast-milk secretion(31.3%).

In the selection of supplementary foods, the nutritional value was given the highest consideration) (54.9%).

many mothers (64.2%) prepared supplementary foods for infants at home, while 23.1% used commercial baby foods and 12.7% gave infants adult's meals as supplementary foods. The major materials for home-made supplementary foods were fruits and vegetables (41.5%) and cereals (37.5%).

The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s (mainly powdered form) were not used much (never used; 53.6%) and even in the babies, who had consumed them once, nearly half of the babies

(42.9) did not eat well.

Accordingly, the many mothers (68.8%) welcomed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supplementary foods in good quality and one-third (31.2%) responded that they would consume them regardless of the price.

I. 緒 論

嬰兒乳期는 一生을 통해 가장 成長 速度가 빠른 時期인 뿐 아니라, 單位 體重 當 營養要求量이 가장 높은 時期이다. 따라서 이때의 營養不足은 身體的, 精神的, 情緒的 發達에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致命的으로 될뿐 아니라 그 不足의 程度가 적을 경우라도 그로 인한 장애는 平生을 두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1,2)}.

어린이는 生後 3,4個月이 되면 젖 이외의 다른 음식에 대한 慾望이 強해지기 시작하여 生後 5,6個月이 되면 乳汁만으로 量的, 質的으로 營養面에서 不足하여 成長 發育이 充分치 못하게 되므로 成人食餌로 접근해가는 離乳과정을 밟아 나가야 한다. 이 時期, 즉 離乳를 하여야 할 時期를 지나서도 營養을 계속 母乳에만 의존하게 되면 熱量, 蛋白質, 鐵分 칼슘등의 無機質과 비타민류의 不足이 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그 以後의 精神發育이나 性格形成에도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一生중 가장 왕성한 成長 發育을 해야하는 乳兒期의 離乳時에 補充食의 不足으로 各 영양소, 그중에서도 특히 蛋白質 및 鐵分の 섭취가 현저히 不足하여 離乳期내지 離乳後期 兒童에서 鐵 缺乏性 貧血의 發生 빈도가 조사지역에 따라 약 40%에서부터 70%까지 나타나고 있다³⁻⁵⁾. 이러한 사실이 우리나라 乳兒들이 離乳期에 들어오면서부터 歐美的 乳兒들에 비해 차츰 成長率의 저하를 가져오는 重要한 原因이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⁶⁾. 그러므로 本研究에서는 現在의 大田市의 離乳實態를 조사하여 앞으로의 바람직한 離乳 계획 및 실천을 위한 資料를 얻고 나아가서는 國民건강의 기초가 되는 乳兒 營養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다.

II. 研究 方法

本 調査는 충청남도 대천시 자양동, 괴정동, 선화동, 대동, 소제동, 탄방동의 6개동에 거주하는 3個月에서 24個月까지의 嬰兒乳 251名(男兒:148명, 女兒 103名)을 임의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1978年 8月 9일부터 8月 23일까지 조사자가 質問紙를 사용하여 各 가정을 방문, 育兒 담당자와 직접 면담함으로써 필요

한 資料를 作成하였다. 통계 처리時 各 要因別 差의 有意性 검증을 위해서는 chi-square 검증법을 적용하였다.

III. 結果 및 考察

1)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背景

調査對象兒의 一般의 背景은 Table 1에 요약하였다.

1) 調査對象兒의 性別 구성은 男兒 58.9%, 女兒 41.4%이었다.

2) 연령은 3~6個月된 乳兒가 8.0%, 7~12個月이 38.2%, 13~18個月이 30.3%, 19~24個月이 23.5%이었다.

3) 出生순위는 첫째가 43.0%, 둘째가 36.2%, 셋째가 11.6%, 넷째이상인 9.2%로 첫째가 둘째에 약 80%가 속했었다.

4) 어머니의 敎育程度는 거의 中卒이상으로, 高卒이상이 44.0%, 高卒未滿이 56.0%이었으며,

5) 어머니의 연령은 거의 35歲미만이었고 30歲이상이 43.2%, 30歲미만이 56.8%이었다.

6) 아버지의 職業은 상업(23.3%), 회사원(20.3%), 공무원(11.3%)의 順으로 많았으며, 가정의 收入정도는 100,000원以下가 8.8%, 100,000원~199,000원이 69.7%, 200,000원 以上이 21.5%이었다.

2) 離乳實態

1) 離乳前의 授乳方法: 離乳前 乳兒의 授乳方法은 Table 2에서와 같이 母乳營養을 半數 以上(60.4%)이 行했으며, 나머지는 混合營養(27.6%), 人工營養(12.0%)의 順으로 授乳하고 있었다. 1970年代 以後에 있어서의 母乳營養 實施率을 比較해 본 결과, 농촌지역에서의 문⁷⁾의 80.0%, 趙¹³⁾의 88.5%에 비해서는 本 調査 地域의 母乳營養 實施率이 낮았으나, 서울에서의 문⁷⁾의 47%, 玄⁹⁾의 41%, 정¹²⁾의 51.7%에 비해, 또 한 中도시에서의 安⁸⁾의 51.9%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는 어느정도 育兒지식이나 營養지식의 보급 효과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母乳營養을 하게된 原因은 「母乳가 아기의 成長 發育에 좋고, 母體의 健康 回復에도 좋으므로」(37.1%)와, 「수유방법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fants

Sex	Number	Percent
male	148	58.9
Female	103	41.1
Age of infants		
3~ 6 months	20	8.0
7~12	96	38.2
13~18	76	30.3
19~24	59	23.5
Birth order		
1st	109	43.0
2nd	90	36.2
3rd	29	11.6
4th or later	23	9.2
Education levels of mothers		
Middle school or under	140	55.8
High school or college	111	44.2
Age of mothers		
Less than 30 yrs old	143	56.9
Above 30yrs, old	108	43.1
Occupation of fathers		
Commerce	70	23.3
Officer	61	20.3
Governmental officer	34	11.3
Others	86	45.1
Income		
Less than 100,000 Won	22	8.8
100,000~199,000 Won	175	69.7
Above 200,000 Won	54	21.5
Total	251	100.0

Table 2. Feeding methods before weaning

Feeding methods	Number	Percent
Breast feeding	152	60.4
Bottled feeding	30	12.0
Mixed feeding	69	27.6
Total	251	100.0

이 편하기 때문에」(33.5%)가 가장 많았고 「母體가 풍부해서」가 26.9%이었다. 人工營養을 하게 된 原因은 「母乳가 不足하거나 產母의 건강이 나빠서」가 73.4%로 가장 많으며, 「어머니의 직장때문에」가 7.5%이었다. 그런데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가 14.2%, 「產母의 미용을 위해서」가 5.0%나 있었던 점은 아직도 상당수의 어머니들의 營養教育이 결핍되어 있는것을 나타내준다.

어머니의 教育水準에 따른 授乳方法에서 有意한 差異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高卒未滿 群이 高卒以上 群보다 母乳營養을 많이하고 있어 서울에서의 女⁹⁾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2) 離乳 시작 時期: 離乳 시작 時期는 Table 3에서와 같이 半數 以上이 4~6個月사이 이어서 (6個月: 23.9%, 4個月: 16.7%, 5個月: 13.6%) 1977年の 中都市에서의 結果⁸⁾(6個月 以前 이주시작: 23.6%)보다 本調査地域인 大田市가 비교적 適期에 離乳를 시작하고 있었다.

3) 離乳 完了 時期: 離乳 完了時期는 每日 규칙적으로 3~4回 以上 乳汁外의 다른 食品을 계속 주고 있는 時期로 하여 調査 당시 離乳를 완료한 對象 132名에 한하여 調査한 結果, Table 4에서와 같이 「12個月이내에 완료한 경우」가 50.7%, 「13~18個月」이 46.5%, 「19~24個月」이 2.1%, 「24個月이상」이 0.7%로서 18個月이내에 대부분의 乳兒(97.2%)가 離乳를 완료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母의 學力別로 離乳 始作時期와 完了時期를 보면 Table 5에서와 같이 離乳 始作時에 있어서는 學力에 관계없이 離乳始作의 適期인 4~6個月에 가장 많이 하

Table 3. Time of onset of weaning

	Infant's age (months)										Total
	3	4	5	6	7	8	9	10	11	12 or more	
Number	20	42	34	60	22	25	6	18	4	20	251
Percent	8	16.7	13.9	23.9	8.8	9.9	2.4	7.2	1.6	8.0	100

Table 4. The time of finishing of weaning

	Infant's age (months)				Total
	12 or earlier	13~18	19~24	25 or later	
Number	67	61	3	1	132
Percent	50.7	46.2	2.3	0.8	100.0

Table 5. The Time of beginning and finishing of weaning by monther's eduction

	monther's eduction		Total
	middle school or lower	High school or college	
Time of beginning of weaning as months age of infants			
1~3 months	7(2.8)	13(5.2)	20(8.0)
4~6	69(27.5)	67(26.7)	136(54.2)
7~9	33(13.1)	20(8.0)	53(21.1)
10~12	26(10.4)	16(6.3)	42(16.7)
Total	135(53.8)	116(46.2)	251(100.0)
Time of finishing of weaning as months age of infants			
~12 months	24(18.1)	43(32.6)	67(50.7)
13~18	38(28.8)	23(17.4)	61(46.2)
19~24	2(1.5)	1(0.8)	3(2.3)
25~	1(0.8)	0(0.0)	1(0.8)
Total	65(49.2)	67(50.8)	132(100.0)

고 있었는데, (54.2%) 이런 현상은 매스콤을 통한 영양 교육의 효과와 어머니들의 學力이 높아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X^2=5.995, p \geq 0.75$), 離乳 完了時期 역시 學力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X^2=4.3, p \geq 0.75$), 12個月以內에 완료한 경우만 볼 때는 高卒以上일 때가 高卒 以下일 때보다 더 많았다(高卒이상: 32.6%, 高卒以下: 18.1%).

4) 離乳方法에 關한 知識의 習得源: 離乳에 關한 知識은 「인쇄물, 육아지도에, 잡지, 신문등의 出版物을 通해서」가 32.6%, 「친구나 이웃 사람을 通해서」가 22.5%, 「병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通해서」가 8.5%, 「집안어른을 通해서」가 4.1%, 「경험에 의해」가 2.9%이었는데, 1975年 李¹⁰⁾의 수원에서 조사한 결과(출판물을 通해: 45%)에 비해 출판물을 通해 얻는 率이 17%나 더 높았다.

5) 離乳實施上의 難點: 離乳實施에 있어서 곤란했던 점은 「아기가 잘 먹으려 하지 않았다」가 34.1%로서

가장 많았고, 「離乳食에 對한 知識이나 方法을 잘 몰랐다」가 33.3%, 「값싸고 좋은 商品化된 離乳食이 우리나라에는 없다」가 18.7%, 「離乳食을 만들만한 時間的 여유가 없었다」가 13.9%로 나타났는데 食品의 다양한 조리법을 강구하여 어린이가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離乳가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겠으며 離乳食에 對한 知識 結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비교적 높은 교육수준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出版物이나 매스콤, 육아상담등에 의한 광범위한 營養 指導나 계몽의 必要性을 인식케 해준다.

3) 離乳食

1) 離乳 始作 食品: 離乳를 시작할때 처음 준 食品은 과일즙이 35.2%, 밥이 17.6%, 난황 12.8%, 죽 10.0%의 願이며 이를 편이상 유동식(과즙, 고기국물, 야채즙), 반유동식(미음, 된장국, 난황, 아기밀, 市販

Table 6. Diet patterns given to the baby for the beginnings of weaning

Diet patterns	Number	Birth order			
		1st	2nd	3rd	4th or more
Clear Liquid Diet	103(41.0)	54(21.5)	39(15.5)	5(2.0)	5(2.0)
Full Liquid Diet	64(25.5)	31(12.4)	17(6.8)	13(5.1)	3(1.2)
Soft Diet	28(11.2)	6(2.4)	13(5.1)	4(1.6)	5(2.0)
Solid Diet	56(22.3)	18(7.2)	21(8.4)	7(2.8)	10(4.0)
Total	251(100.0)	109(43.5)	90(35.8)	29(11.5)	23(9.2)

$X^2=30.705$, $P<0.01$
(): percent.

Table 7. Ways of supplementary food preparation by monther's age

Ways of preparation	Number	Precent	Mother's age	
			Tess than 30 yrs. old	above 30 yrs. old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s	58	23.1	38(15.1)	20(8.0)
Home-made supplementary foods	161	64.2	93(37.1)	68(27.0)
Gave the bady adult's foods	34	12.7	11(4.4)	21(8.4)
Total	251	100.0	142(56.6)	109(42.4)

(): percent
 $X^2=11.359$, $P<0.005$

이유식), 軟食(죽, 두부), 固形食(밥, 과자, 콩)으로 분류해 볼때 Table 6에서와 같이 유동식은 41.0%로서 1974년 문⁷⁾의 도시 조사보고에서와 같이(유동식: 49.9%) 가장 큰 비율이었고, 반 유동식은 25.5%, 연식 11.2%, 고형식 22.3%로 아직도 離乳食에 對한 知識 결여나 무성의로 인해 成人들의 食사를 함께 먹이는 固形食을 離乳 始作 食品으로 주는 率이 컸다. 出生順位 別로는 Table 6에서와 같이 첫째 아기일 경우가 둘째 이후의 아기보다 離乳 始作食品을 理想的인 유동식으로 더 많이 마련해 주고 있어 이들間에 매우 有意인 差가 나타났다($X^2=30.705$, $P<0.01$). 이는 出生順位가 빠를수록 아기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因해 關心度가 커지는 때문이거나 엄마의 연령이 젊어지는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離乳食 마련방법: 離乳食 마련 方法에 있어서는 Table 7에서와 같이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었다」가 64.2%로 가장 많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離乳食을 사서 주었다」가 23.1%, 「식사에 어른들의 음식을 그대로 먹였다」가 12.7%였다.

어머니들의 연령과의 관계에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었다」가 20대에서는 37.1% 30대 以上에서는 27.1

Table 8. Major food materials used in home-made bady food

Major food materials	percent
Meats	9.9
Eggs	11.1
Vegetables & fruits	41.5
Cereals	37.5
Total	100.0

%로서 연령에 따라 매우 有意인 差를 나타냈다($X^2=11.359$, $P<0.005$). 집에서 직접 만들어 주었을 경우 主된 食品재료로는 Table 8에서와 같이 「야채, 과일류」가 41.5%로서 가장 많고, 「곡류」도 37.5%로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육, 어류」의 사용율은 9.9%로서 玄⁹⁾의 서울에서의 육, 어류 사용율 24.5%보다는 훨씬 떨어지나 다른 中도시에서의 육, 어류 사용이 전혀 없는 점에 比해서는 비교적 육, 어류 사용율이 높았으며, 곡류의 사용율은 아직도 높아 앞으로는 좀더 육, 어류를 많이 사용하는 離乳食으로 개선되어야 하

Table 9. The emphasized points in the selection of supplementary foods

items	percent
Nutritional value	54.9
Flavor, color, preference of baby	21.6
Digestibility	13.6
Economy	9.9

리라고 생각된다.

3) 離乳食을 주게된 動機: 離乳食을 주게된 動機는 「아기가 母乳이외의 다른 음식물을 먹으려 하므로」가 41.3%, 「모유만으로는 不足하기 때문에」가 31.3%, 「아기의 건강과 營養을 위해서」가 23.4%, 「엄마가 임신이 되었거나 엄마의 건강이 나빠서」가 4.0%로서 약 70%정도가 아기의 要求나 母乳의 不足을 理由로 들었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離乳를 시작한다는 적극적인 立場은 겨우 23.4%였다.

4) 離乳食의 결정: 離乳食의 결정은 어머니가 95.5%, 조부모 2.1%, 아버지 1.4%, 양친함께 1.0%로서 離乳食의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어머니였다. 이는 어머니의 젊은 연령층에 기인되는게 아닌가 한다.

5) 離乳食品 선택시 중점을 둔 면은 Table 9에서와 같이 「영양가」가 54.9%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맛, 색, 아기의 기호」가 21.6%, 「소화율」이 13.6%, 「경제성」이 9.9%로서 영양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 離乳 初期에는 아기의 소화율이 나 기호 역시 同一하게 중요한 고려要因이 아닐까 생각된다.

6) 市販 離乳食品 사용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離乳食品(××이유식, ××아기밀등 주로 분말형태의 것)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使用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46.4%, 使用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53.6%로서 使用해 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으며 먹여본 경우 아기들이 「잘 먹으려 하지 않았다」가 43.8%, 「우유와 함께 잘 먹었다」가 39.1%, 「우유보다 더 좋아했다」가 11.7%, 「전혀 먹지 않았다」가 5.4%인데 여기에서 아기가 잘 먹지 않았거나 전혀 먹지 않은 경우가 49.2%로서 상당수의 아기들에 있어 市販 離乳食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어 좀더 아기의 기호와 영양을 고려한 상품의 質의 改善이 요망된다. 잘 먹은 아기의 경우에서 3個月以上 계속먹인 예는 그중 43.2%였다.

7) 우수한 國產 離乳食品의 개발에 對한 어머니들의 見解: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市販되어 온 분말위주의 離乳食品과는 다르게 肉, 魚類, 야채, 과일류등으로

Table 10. Mother's opin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commercial supplementary foods

Mother's opinion	Number(%)
Will consume much regardless of the price	78(31.2)
Will consume much if the price is cheap	45(17.8)
Will consume some	29(11.4)
Will not consume	99(39.6)
Total	251(100.0)

이유식 종류의 다양화와 不足한 영양소의 첨가등 質的으로 보다 우수한 상품이 개발되어 나올 경우 어머니들의 견해는 Table 10에서와 같이 「가격의 고평가를 막론하고 많이 이용할 것이다」가 31.2%, 「가격이 싸다면 많이 이용하겠다」가 17.8%, 「어느정도 이용할 것이다」가 11.4%, 「별로 사용치 않을 것이다」가 39.6%로서 사용하겠다는 立場이 全體적으로 60.4%로 많았다. 이를 母의 學力, 母의 연령, 收入과 比較해 볼 때

i) 사용하겠다는 견해는 高卒 以上이 40.3%, 高卒 以下가 26.6%로서 學力에 따라 매우 有意있는 差異를 나타내었다($X^2=9.814, P<0.005$).

ii) 어머니의 연령과는 有意性있는 差를 나타내지 않았으며($X^2=0.640, P\geq 0.50$),

iii) 收入別로는 使用하겠다는 견해가 2000,000원 以上群에서 50.3%, 1000,000원~199,000원群에서 40.4%, 100,000원 未滿群에서 9.3%로서 各 群間에 매우 有意있는 差를 보였다($X^2=8.235, P<0.05$).

이는 적당한 아기식품의 선택이나 離乳時期의 결정은 영양에 관한 관심보다는 社會·文化·經濟的 要因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된다는 Bowering¹⁶⁾의 견해와 일치되는 결과라고 보겠다.

이로써 嬰乳兒의 營養·기호·소화흡수面을 고려한 經濟的인면서도 良質의 離乳食의 生産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재 外國에서의 수입상품이 시중에 나와 있으나 全體 國民 經濟사정에 比較 될선 高價이기 때문에 소비계층의 폭은 다소 늘어났다 하더라도 아직 많은 층이 두루 이용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離乳食의 生産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食品工業의 발달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국민영양을 기초가 되는 어린이 영양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경제지원등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생산 원가를 낮춰 食品製造業者

들이 가진 참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겠다. 또한 가정에서도 손쉽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이유식 마련방법이나 離乳食에 관한 광범위한 영양교육을 대중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신문, 방송등의 매스컴이나 출판물등을 통해 펼쳐 나아가야 하리라고 본다.

IV. 結 論

大田市에 居住하는 3個月에서 24個月까지의 嬰乳兒 251名(男兒:148名, 女兒:103名)을 對象으로 1978年 8月 9일부터 8月 23일까지 어머니와의 直接面談을 통해 離乳實態를 조사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一般的 背景

對象 嬰乳兒의 연령은 3~6個月이 3.0%, 7~12個月이 38.2%, 13~18個月이 30.3%, 18~24個月이 23.5%였으며, 出生順位는 첫째가 43%, 둘째가 36.2%로서 80%이상의 유아가 첫째와 둘째에 속해 있었다.

母의 教育水準은 거의 中卒이상으로 고졸이상인 44.2%, 高卒미만이 55.8%이었으며, 母의 연령은 30歲를 前後하여 분포되어 있었으며 30歲미만이 56.9%로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가정의 月平均 收入은 100,000원에서 200,000원 사이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2) 離乳實態

1) 離乳前 乳兒의 授乳方法은 母乳營養이 60.4%, 혼합영양이 27.6%, 人工營養이 12.0%였고, 母乳營養을 하고 있는 이유로는 「母乳가 嬰兒의 成長·發育에 좋고 母體의 健康회복에도 좋기 때문」과 「수유방법이 편하기 때문」이 각기 37.1%, 33.5%로써 큰 이유였으며, 人工營養을 하는 이유로는 「母乳의 不足 또는 產母의 健康이 나빠서」가 73.3%로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母의 教育水準別 수유방법 間에는 意味있는 差가 나타나지 않았다.

2) 離乳시작 시기와 완료시기는 母의 學歷과는 關係 없이, 離乳의 시작은 適期인 6個月以內에 62.2%가 행하고 있었고, 離乳완료는 12個月以內에 50.7%, 13~18個月이 46.5%로 對象兒 대부분이 18個月以內에 離乳를 完了하고 있었다.

3) 離乳에 關한 知識의 習得은 주로 출판물을 통해서 (62.0%)였다.

4) 離乳實施에 있어 곤란했던 점은 아기가 잘 먹으려 하지 않아서 (34.1%)와 이유식에 關한 知識 결여

때문(33.3%)이었다.

5) 처음으로 준 離乳食은 肉類食이 40.8%, 蛋類食이 25.1%, 麵食이 11.6%, 高糖食이 22.3%로서 高糖食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다. 出生順位가 빠를수록 肉類食을 離乳시작식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間에 매우 有意있는 差를 보였다.

6) 離乳食을 주게된 動機는 주로 嬰兒의 육구때문 (41.3%)과 母乳의 不足때문(31.3%)이었으며,

離乳食品 선택時 重點을 둔 面은 營養價가 54.9%, 嬰兒의 기호가 21.6%, 소화율이 13.6%의 順이었다.

7) 離乳食 마련방법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준 경우가 64.2%로서 가장 많았고, 市販 離乳食을 사서 주었다가 23.1%, 어른들의 肉類食을 그대로 주었다가 12.7%의 順이며,

집에서 만들어 준 경우, 식품의 主材料는 야채, 과일류가 41.5%, 곡류가 37.5%, 육·어류가 9.9%의 順이었다.

離乳食 마련 방법은 母의 연령에 따라 有意있는 差異가 나타나 母의 연령이 어릴수록 집에서 만들어주는 율이 컸다.

8) 市販되는 離乳食品에 대해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53.6%나 되었으며,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라도 嬰兒들의 반응에서 잘 먹으려 하지 않은 경우가 49.2%였다.

9) 良質의 새로운 國產 離乳 食品의 개발에 대한 어머니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사용하겠다는 立場이 68.8%로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母의 연령과는 無關하였으나 母의 學歷, 收入에 따라서는 매우 有意있는 差가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 1) Albanese, A.A. and Orto, L.A.: *Modern Nutrition in Health and Disease, 4th ed., Lea and Febiger, 1968, p. 148.*
- 2) 劉貞烈: 胎乳幼兒期의 칼로리 및 단백질 不足에 대하여. 한국영양학회지, 9(1):1, 1976.
- 3) 金命鎬: 우리나라 농촌 어린이의 영양문제. 대한 의학회지, 9(5):421, 1966.
- 4) 金仁圭: 離乳期乳兒의 貧血에 關한 考察. 小兒科, 9(4):241, 1966.
- 5) 丁英鎭: 일부농촌지역, 成長期兒童의 단백질 및 철분영양상태에 關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3.
- 6) 대한소아과학회: 한국 소아의 발육표준치. 소아과,

10(4), 부록 1, 1967.

- 7) 문영임 : 지역적으로 본 우리나라 어린이의 영양법. 카톨릭의대논문집, 26:821, 1974.
- 8) 안숙자 : 한국 중도시 유아의 이유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45-55, 1977.
- 9) 현기순 : 月齡別 離乳食 研究.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1:83, 1976.
- 10) 이혜숙 : 유아아 이유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신 의학, 18(1):83, 1975.
- 11) 이현금, 독고영창, 황우주 : 농촌지방 이유 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2):117, 1968.
- 12) 정국배 : 서울을 중심으로. 이유실태 조사. 공주사대논문집, 12:305, 1975.
- 13) Yoon, Jong June and Kim, In Dal: *Study on Weaning Pattern and nutritional status of Infants and Toddlers in Korea*, 한국영양학회지, 3(2):65, 1970.
- 14) 趙敬植 : 태아의 수유 및 예방접종. 가족계획연구원, 8:50, 1973.
- 15) 尹德鎭 : 한국小兒의 體位에 관하여. 한국영양학회지, 1(2):121, 1968.
- 16) Bowering, J., Lowenberg, R.L., Morrison, M.A., Parker, S.L. and Tirado, N: *Infant Feeding Practices in East Harlem*, *J. Am. Dietet. Assn.*, 72:148, 1978.